

# 고대영어와 화제화

현 완 송

(사범대 영어교육과)

## 〈 차례 〉

1. 서론
  2. 체계문법의 어순원리
  3. 고대영어의 화제화
  4. 결론
- 〈약어목록〉

### 1. 서론

체계문법(systemic grammar)을 발전시킨 Halliday(1985:33-40)는 절(clause)을 전언으로서의 절(clause as a message), 의사교환으로서의 절(clause as an exchange), 그리고 제시로서의 절(clause as a representation) 등 세 가지 종류로 대별한다. 본 연구는 Halliday의 분류를 토대로 할 때, 고대영어의 주절은 전언으로서의 절의 성격이 강하고, 종속절은 의사교환으로서의 절의 성격이 강함을 보이고, 또한 주절의 강한 전언으로서의 절의 성격은 고대영어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던 화제화의 결과임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체계문법의 어순 원리

Halliday가 발전시킨 체계문법(systemic grammar)의 어순원리는 한마디로 주제우선원리(theme first principle)라고 할 수 있다. Morley(1985:70)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문장은 주제구조

(thematic structure) 곧 「theme + rheme」의 구조를 갖는데, 이 구조가 바로 체계문법의 어순원리인 것이다.

Halliday(1985:33-40)는 먼저, 절을 전언으로서의 절(clause as a message), 의사교환으로서의 절(clause as an exchange), 그리고 제시로서의 절(clause as a representation)의 세 가지로 대별한다. 그리고 각각의 절에서 중심이 되는 구성소를 각기 심리적 주어(psychological subject), 문법적 주어(grammatical subject), 그리고 논리적 주어(logical subject)로 보고 있다. 여기서 심리적 주어는 주제(theme), 문법적 주어는 주어, 논리적 주어는 행위자(actor)인데, 이 세 가지 주어가 일치하는 구조가 무표적(unmarked) 어순이고, 일치하지 않을 수록 유표적인(marked) 어순인 바, Halliday(1985:34)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 무표구조

the duke	gave	my	aunt	this	teaspoon
심리적 주어					
문법적 주어					
논리적 주어					

#### 유표구조

this teaspoon	my aunt	was given by	the duke
심리적 주어	문법적 주어		논리적 주어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가지 주어가 일치할 때 가장 일반적인 어순 구조가 되며, 일치하지 않을 때 특수한 어순구조가 된다. 한편, 심리적 주어 즉 주제는 「전언으로서의 절」에서의 관심사(that which is the concern of the message)로서, 화자는 이것을 발화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고, 따라서 어떠한 문장에서도 주제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다.

Halliday는 이러한 개념을 확대하여 주제를 명사구(nominal group)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즉 문장의 첫 위치에 등장하는 임

의의 요소는 화자의 발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것을 모두 주제로 삼고 있으며, 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논술(rheme)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Morley(1985:70)는 "The theme is thus the element which the speaker selects as the starting point of his message, and everything that follows it is the rheme"이라고 주제와 논술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의 예를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theme	rheme
The results	will be announced tomorrow.
Tomorrow	the results will be announced.
Announce	the results tomorrow.
Frankly	I'm amazed.
Tired	you may be.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는 명사구에 국한되지 않는다. 명사구 외에도 술어(predicator), 보어(complement), 부가어(adjunct) 등 문장의 첫 위치에 등장할 수 있는 모든 구성소가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고대영어는 「앵글로-색슨 연대기」, 고대영어 「성서」 등 문어(written language)로서만 존재한다. 고대영어로 씌어진 글 중 특히 산문은 독자들에게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교리, 교훈 등을 주로 전달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영어의 문장들은, Halliday의 표현을 빌리면, 전언으로서의 절(clause as a message)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제-논술의 어순원리는 고대영어의 어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제 고대영어의 문장들을 살펴보자.

(1)

a. Ða sealde se cyning him sweord (A.B.)

Adv Vf

(then gave the king him sword)

'Then the king gave him (a) sword'

b. Hē gehet Rōmanum his frēondscipe. (A.B0)

S Vf

(he promised Italy his friendship)

'He promised Italy his friendship.'

c. Ðæt dyde unhold mann. (Mat.)

Od Vf

(that did hostile man)

'(A) hostile man did that'

d. Him andwyrde sē fæder (A.I.)

Oind Vf

(him answered the father)

'The father answered him'

(2)

a. God geseah þā þæt hit gōd wæs: (Cre.)

Comp S C Vf

'God saw then that it was good.'

b. þā þewutdōmas þe hie Gode dōn sceoldon (C.P.)

Comp S Oind Vn Vf

'the services that they should do to God'

c. Ic wēne þætte nāught monige begeondan Humbre næren.

Comp S PP Vf

(C.P)

'I think that nothing many were beyond Humber'

d. mē þynceþ wislic . . . þæt wē þām onfōn. (A.B.)

Comp S O Vf

'(It) seems wise to me . . . that we accept.'

위의 (1)은 고대영어 주절의 예들인데, 모든 문장에서 한정동사가 문장의 두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sup>1)</sup> (2)는 어휘보문자

(lexical complementizer)로 유도되는 종속절의 예들이다. 그런데 위의 (1)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영어의 주절에서 그 첫번째 위치는 부사,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등 임의의 구성소가 차지한다. 이것은 고대영어의 주절은 체계문법의 전언으로서의 절의 성격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문장의 첫번째 위치에 나타나는 임의의 요소는 전언의 관심사(that which is the concern of the message) 곧 심리적 주어로서 화자는 이것을 발화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한편, 위의 (2)에 있는 문장들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영어의 종속적에서는 주어가 절의 첫 위치를 거의 예외없이 차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대영어의 종속절은 SOV유형이지만 주절은 SVO유형이 아니고 오히려 TVX(T: topic, X: 임의의 구성소)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고대영어 주절의 첫번째 위치는 주어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어떤 구성소라도 올 수 있는 자리이다. 그러나 한정동사는 두번째 자리에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어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3)

a. Auf dem Weg wird der Junge eine Katze sehen.

(On the way will the boy a cat see)

'On the way, the boy will see a cat)

b. \*Auf dem Weg der Junge wird eine Katze sehen.

(On the way the boy will a cat see)

'On the way, the boy will see a cat.'

(Santorini(1992:596)에서 인용)

위의 (3)에서 보듯이 독일어 주절의 첫번째 위치는 주어외에도 임의의 구성소가 차지한다. 그러한 한정동사는 여전히 두번째 위치에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못한 (3b)는 비적격문이 된다. 이처럼 고

1) 이러한 현상은 v-2 이동이라고 하는데, v-2이동에 관한 내용은 현완송(1994) 참조 바람.

대영어의 주절은 전언으로서의 절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 3. 고대영어의 화제화

전술했듯이,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고대영어는 앵글로-색슨 연대기, 고대영어 성서 등의 글에서 문어(written language)로서만 존재한다. 고대영어로 씌어진 글 중 특히 산문은 독자들에게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교리, 교훈 등을 주로 전달해 준다. 따라서 고대영어 문장은 Halliday(1985:36-39)의 표현을 빌리면, 전언으로서의 절(clause as a message)의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하여 고대영어의 문장구조는 대체로 「주제(theme) + 논술(rheme)이라는 체계문법의 문장구조에 일치한다.

Halliday(1985:38-57)는 주제와 논술이 전언(message)을 형성한다고 말하면서 아래의 문장들을 예로 들어 주제와 논술의 개념을 밝힌다.

(1)

theme	rheme
the duke	has given my aunt that teaspoon
that teaspoon	the duke has given to my aunt
very carefully	she put him back on his feet again
once	I was a real turtle
for want of nail	the shoe was lost
sing	a song of sixpence
what the duke gives to my aunt	will be that teaspoon

위의 (1)에서 보듯이 주제는 전언의 출발점(starting-point for the message) 즉 화자의 심리적 주어(psychological subject)로서 항상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위치한다. 주제는 또한 일반적 주어 외에도 부사(구), 목적어, 전치사구, 동사 심지어는 절(clause)까지 포함하는 모든 구성소로 실현된다.

이제 이러한 「주제+논술」 구조를 염두에 두고 아래의 고대영어 문장을 살펴보자.

(2)

a. Đū hafast gecoren þone wer (Ap.)

S Vf Vn O

(you have chosen the man)

'You have chosen the man'

b. After þissum forlēt Apollonius þā hearpan (Ap.)

PP Vf S O

(after this left Apollonius the harp)

'After this Apollonius left the harp'

c. Him andwyrde sē fæder. (A.I.)

Oind Vf S

(him answered the father)

'The father answered him.'

d. Ðæt dyde unhold mann. (Mat.)

Od Vf S

(that did hostile man)

'(A) hostile man did that.'

e. Ðā sægde Abraham him. (Lu.)

Adv Vf S Oind

(then said Abraham him)

'Then Abraham said to him.'

앞의 (2)에 있는 문장들에서 보듯이 고대영어 주절의 경우 한정 동사는 v-2이동에 의하여 항상 문장의 두번째 자리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 문장의 첫번째 자리는 주어, 전치사구, 간접목적어, 부사 등 임의의 구성소가 차지한다. 이처럼 고대영어의 주절은 어떤 구성소라도 문두에 나타남으로써 「주제 + 논술」이라는 체계문법의 문장구조에 충실한 면모를 보여준다. 다시 말하여 전언의 출발점 곧 화자의 심리적 주어인 주제가 문법적 주어보다 빈번하게 사용됨으로써 고대영어의 주절은 Morley(1985:70)의 표현을 빌리

면, 주제적 구조(thematic structure)에 충실하다. 고대영어의 주제적 구조에 충실하다는 사실은 동사가 문두에 위치하는 문장에서도 확인된다.

(3)

a. Wæs hē sē mon. in weoruldhāde geseted (A.B.)

Vf S PP Vn

(was he, the man, in secular life set)

'He, the man, was set in secular life'

b. Hæfde hē bisceopsetl in fære stōwe (A.B)

Vf S O PP

(had he bishopric in the place)

'He had bishopric in the place'

c. Sang hē ærest be middangeardes gesceape (Cae.)

Vf S Adv PP

(Sang he first of earth's creation)

'He sang first of (the) earth's creation'

d. Hæfde sē cyning his fierd on tū tōnumen (Chr.)

(had the king his army in two divided)

'The king had divided his army in two (parts)'

위의 (3)에서 보듯이 고대영어의 주절에서 한정동사는 바로 문장의 첫번째 위치에 등장하기도 한다. Lass(1994:221)는 이것을 화제화에 의한 동사의 문두 위치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대영어의 주절은 동사까지도 포함하는 임의의 구성소가 심리적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두에 위치함으로써 주제적 구조에 충실한 것이다.

한편, Halliday(1985:39-60)는 주제와 화제의 개념을 비교한다. 그에 의하면, 주제는 위의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단순주제(simple theme)와 아래의 (4)에서 보는 것과 같은 복합주제(multiple theme)로 분류된다.



(4)

it	was his teacher	who	persuaded him to continue
theme	rheme	theme	rheme
theme	rheme		

이때 단순주제가 화제적 주제(topic theme) 곧 전통적인 화제인 것이다. Halliday의 분석을 수용할 때,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는 곧 화제이며 또한 본 연구의 범위에 복합주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주제, 주제화(thematicization)라는 용어 대신 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화제, 화제화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한편, (2)와 (3)에서 볼 수 있는 주제적 구조 곧 화제화 구문은 종속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문장을 보자.

(5)

a. ƕæt nān mon ƕone æstel from ƕære bēc ne dō.

Comp S O PP neg V

(that no man the cover from the book not remove)

'that no man should remove the cover from the book.' (C.P.)

b. forƕon ic nāht singan ne cūƕe (A.B.)

Comp S O Vn neg Vf

(because I nothing sing not can)

'because I can not sing nothing'

c. Ɔa se cyning ƕa ƕas word gehƕrde. (A.B.)

Comp S Adv O V

(When the king then these words heard)

'When the king heard these words.'

d. ƕæt wē ƕære fylgen (A.B.)

Comp S O V

(that we her follow)

'that we follow her'

위의 (5)에 있는 문장들은 어휘보문자가 있는 종속절인데, 모두 고대영어의 기저어순인 SOV유형으로 나타난다. 즉, 주어는 항상 문장의 첫번째 위치에 오고, 한정동사는 문장의 마지막 위치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여 주어이외의 구성소는 문두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휘보문자가 있는 종속절에서는 v-2 이동의 차단과 함께 화제화도 차단된다. 그러면 이제 Chomsky(1993)의 기본문장 구조와 그의 논의에 따라서 고대영어의 화제화를 고찰해 본다.

Chomsky(1993:32)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펴고 있다. 즉 보문자에는 의문사 자질(wh-feature)과 양화사자질(Q-feature)이 있다. 따라서 의문사구(wh-phrase)나 양화사(quantifier)가 보문자에 있는 자질의 점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보문자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화제화나 초점(focus)도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보문자에 있는 자질이 강하면(strong), 이동은 의무적이다. 이러한 Chomsky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고대영어의 화제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가정이 성립한다.

(6)

- a. 보문자에 [+Topic]이 있다.
- b. 고대영어의 모든 구성소에도 화제자질이 있다.
- c. 고대영어 보문자의 화제자질은 강하다.
- d. 따라서 고대영어에서 화제화는 의무적이다.
- e. 어휘보문자는 화제화를 저지한다.

위의 가정중 (6a)는 Chomsky의 견해를 수용한 결과이다. (6b)와 (6c)는, 전술했듯이, 고대영어의 주절은 전언으로서의 절의 성격이 강하여 「주제 + 논술」이라는 체제문법의 구조에 충실하다는 사실에서 그 타당성이 확인된다. (6d)는 위의 고대영어 문장 (2)와 (3)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6e)는 위의 (5)의 문장들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면 위의 가정 (6)에 입각하여 고대영어 화제화의 실재를 살펴본다.

(7)

Ðæt dyde unhold mann. (M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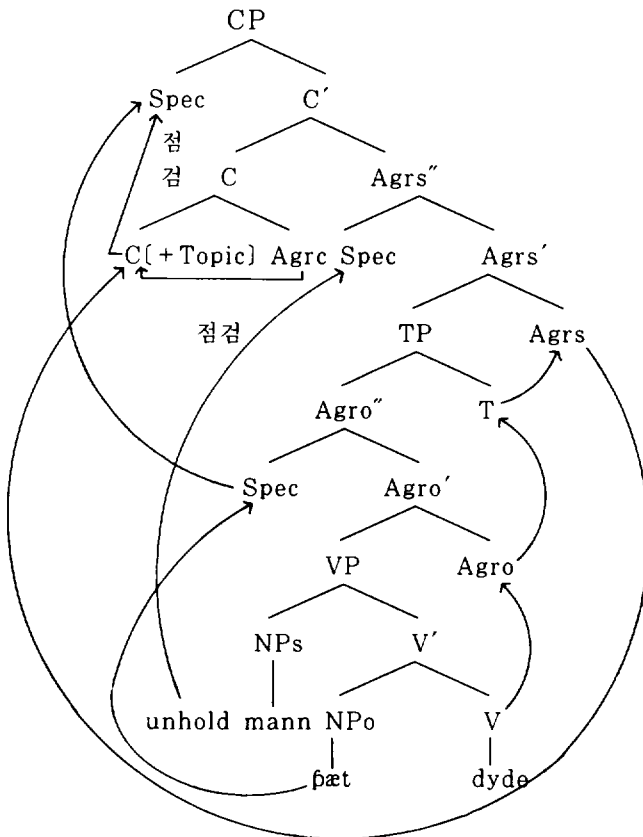
O V S

(that did hostile man)

'(A) hostile man did that'

이제 위의 문장 (7)을 도출해 본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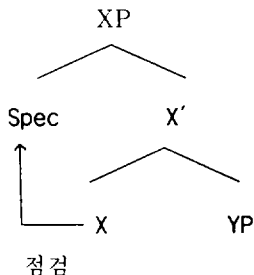


위의 (8)은 문장 (7)의 구표지(phrase marker)인데, 주어, 목적어, 동사의 여러 이동은 Chomsky(1991, 1993)의 점검이론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위의 (7)에는 어휘보문자가 없다. 어휘보문자가 없기 때문에 위의 가정 (6)에 의해서 고대영어 보문자의 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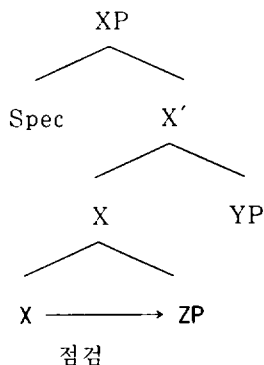
[+Topic] 자질이 임의의 구성소를 보문자의 지정어 위치로 끌어 올려 그것의 형태자질 즉 [+Topic] 자질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위의 가정 (6b)에서 보듯이 모든 구성소에는 [+Topic]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질을 점검받기 위하여 임의의 구성소가 보문자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Chomsky(1993:28)가 제시하는 점검영역을 아래의 (9)와 (10)중의 하나이다.

(9)



(10)



따라서 화제화에서는 (9)와 같은 점검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제 화제화와 관련된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즉, 보문자에 있는 화제자질은 어떤 경우에는 주어를 끌어당기고, 어떤 경우에는 동사를 끌어당기며, 또 어떤 경우에는 목적어를 끌어당기는가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하여 보문자의 지정어 자리에는 어떤 구성소라도 갈 수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 언어의 어떤 형태자질이 어떤 때는 주어(Subject)를 원하고, 어떤 때는 목적어(Object)를 원하며, 또 어떤 때는 부사(Adverb)를 원하는 것일까?

그러나 위의 질문에는 신통한 답변이 없다. 결국 위의 질문은 화용론적(pragmatic) 또는 문체론적(stylistic)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고대영어는 전언으로서의 절의 성격이 강하다. 즉 문법적 주어보다는 전언의 출발점 곧 화자의 심리적 주어인 화제가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런데 심리적 주어를 선정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고 바로 인간(화자)인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고대영어 주절에 나타나는 화제화를 고찰해 보았다. 고대영어는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어(dead language)이다. 즉 고대영어는 문어(written language)로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고대영어로 씌어진 글들은 주로 독자들에게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교리, 교훈 등을 전달해 준다. 따라서 고대영어의 문장은 Halliday(1985)의 표현을 빌 때, 전언으로서의 절의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하여 고대영어에서는 전언의 출발점 곧 화자의 심리적 주어가 문법적인 주어보다 더 자주 사용되었다. 따라서 고대영어의 화제화는 현대영어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목적어, 부사 등의 구성소는 물론이고 동사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어떤 구성소를 화제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언어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결국 인간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음도 아울러 밝혔다.

<약어 목록>

1. 고대영어작품

A.B.	The Alfredian Bede
A.Bo.	Alfred's Boethius
A.I.	Abraham and Isaac
A.L.	From Alexander's Letter to Aristotle
Ap.	Apollonius of Tyre
Cae.	The Story of Caedmon
Chr.	The Old English Chronicle
C.P.	Cura Pastoralis
Cre.	The Creation
Lu.	The Gospel of Luke
Mat.	The Gospel of Matthew

2. 용어

Adv: adverb	PP: prepositional phrase
C: complement	S: subject
Comp: complementizer	V: Verb
neg: negative	Vf: finite verb
O: object	Vn: non-finite verb
Od: direct object	X: variable
Oind: indirect object	

**참고문헌**

- Chomsky, N.(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R. Freidin ed.,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MIT Press.

- Chomsky, N.(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and S.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MIT Press.
- Halliday, M. A. K.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Lass, Roger (1994) *Old English: A Historical Linguistic Compa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ch, F. A. (1888)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Anglo-Saxon*.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 Mitchell, B. and F. Robinson. (1992) *A Guide to Old English*. 5th ed. Oxford: Blackwell.
- Moore, S. and T. S. Knott (1965) *The Elements of Old English*. J. R. Hulbert rev., Ann Arbor: George Wahr.
- Morley, G. D. (1985). *An Introduction to Systemic Grammar*. London and Basingstoke: Macmillan.
- Santorini, B. (1992) "Variation and Change in Yiddish Subordinate Clause Word Order."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0. 595-640.
- Sweet, H and C. T. Onions (1950) *Sweets Anglo-Saxon Reader in Prose and Verse*. 12th ed. Oxford: Claredon.
- Wyatt, A. J. (1959) *An Anglo-Saxon Rea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현완송 (1994) *고대영어의 어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